



OTF Open Type Font

개방 언제꿈

개인용 휴대폰에 연예인 전용 서체가 탑재되고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활용,
 기업이 전용 서체를 보유하는 등 국내 폰트제작 환경이 다각화되고 있다.
 또 북대방정(중국 서체)을 개발해 오히려 중국에 역수출하는
 서체 업체도 등장하면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글꼴 개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같은 서체 시장의 흐름에 비춰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애플컴퓨터에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Mac OS X 버전 중 3번째 업그레이드를 마친 'Tiger'가 출시됐고 QuarkXPress도 잇따라 6.5 버전을 선보였다. 최근 MS사의 움직임도 국내 시장의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윈도우 XP 프로페셔널 버전 향상과 함께 다각적인 변모를 추구하고 있다. 서체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서체 개발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터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소프

트웨어 제작 업체들이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 그리 후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영역은 하나의 모습을 갖춘 카테고리가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을 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아직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한글 글꼴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기폭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온 서체, 즉 폰트에 대한 사업 부문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바로 글꼴 디자인을 통해 수많은 표현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 있어 서체가 소프트웨어로 진입하는 첫 관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체를 움직이는 주변 환경

그렇다면 서체의 기술적인 변천사를 이끌어 내기에 적당한 하드·소프트웨어에는 어떠한 환경들이 있을까. 굳이 큰 테두리로 묶어 구분한다면 바로 PS(PostScript) 환경과 TTF(True Type Font)로 나타낼 수

있다. 전자는 프린트를 비롯한 출력 시장의 기본을 바탕으로 1985년 어도비사가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막강한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자리를 굳힌 지 오래됐고 후자는 MS사가 프로그램적인 환경에 적당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중반 이 같은 환경은 기획에서 편집, 그리고 출력이라는 부문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서체는 Bitmap Font, PFM(Print Font Matrix) 등 수많은 표현, 입력 방식을 이끌어 내며 인쇄·출판 시장의 흐름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 흐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자세히 뜯어보면 마치 피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하듯 서로 절묘하게 연결돼 있다. 풀어내자면 기획,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Photoshop, Illustrator 등 수많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신명조 등의 서체가 필요하다. 이때 쓰이는 서체를 흔히 화면용 서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편집 작업을 위해 dpi(dot per inch)의 해상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200~300dpi 정도의 망점을 가진 서체라면 일반 인쇄물에서 화면의 모자이크 처리나 깨짐이 없이 곧바로 출력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바로 상업 인쇄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망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상도의 출력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쇄·출판 시장의 채산성 확보는 출력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같은 작업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출력소에서 이같은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다양한 출력용 서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담당했던 실무자는 이 같은 서체가 보유했던 출력실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일까. 바로 서체를 사용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지출이 출력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또 서체 회사들이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체

를 출력 환경(IBM, Mac)에 맞게 구축해도 이에 대한 타산, 즉 인쇄물 수주가 꾸준히 나오는 장기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커다란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구조적인 모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순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출력소에게만 전가되는 서체 사용료다. 기획, 편집 실무자들의 입맛에 길들여진 서체를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져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상업 인쇄를 비롯한 각종 인쇄·출판을 소화해야 하는 출력들의 입장은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영리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일반 유저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서체 판매가격이 10년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 졌다고는 하지만 50~6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입비용에 대해 선뜻 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불법 복제를 양산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 대의 출력기에 수많은 서체를 잠시 탑재해 사용하다가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기간이 되면 철거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객들 즉 기획, 편집자들이 요구해 오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 입맛을 맞춰야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사실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기획, 편집 단계뿐만 아니라 출력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비슷한 악순환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체 사용료라는 부담도 “5~6년만 지나면 장비 가격과 맞먹는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각 출력소들은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물론 서체 회사들도 개발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먼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현재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수요를 이끌어 내기에는 이제 현실이 받쳐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글 글꼴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기폭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온 서체, 즉 폰트에 대한 사업 부문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바로 글꼴 디자인을 통해 수많은 표현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 있어 서체가 소프트웨어로 진입하는 첫 관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등에 업고 현재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Mac OS X의 환경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중론이다. 편집·조판 프로그램의 멀티 환경에 적합한 모양이 모습을 갖추고 양질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 서체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명쾌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기획사와 출력실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열쇠는 프리프레스 작업 단계 이전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움직이고 있는 서체 업체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서체 지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들의 속사정은 또 기술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PDF 제작 업체 한 관계자는 “PDF를 이용하면 별다른 편집 작업이 필요 없이 곧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며 “국내 인쇄·출판의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적인 진척도의 걸림돌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가변 폭을 극대화 시킨 서체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바로 소프트웨어 환경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 이를 받아들여 인쇄물을 출력하는 사람이 다른 시야를 통해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Mac OS X’이라는 명석과 ‘서체 시장 개방’이라는 주사위의 구비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던지느냐라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OTF 시장 개방 시급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다국어 서체를 취급, 수출하는 한 서체 전문가는 “서체 시장이 과거 10년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OTF 서체가 시급히 출시돼 국내 시장에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트맵·벡터·트루타입 폰트 등 현재 윈도우에서 운용되고 있는 3가지 글꼴의 최대 장점을 끌어내 해상도에 상관없이 인쇄, 출력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OTF(Open Type Font), 즉 오픈트루타입의 서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과거 ‘AAA’나 ‘A’로 표현해야 했던 트루타입 폰트상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일정한 Outline(외곽선)만 지정해 주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편집·조판 프로그램에서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취향과 고객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 다양한 서체 가변 폭이 자유로워져 중소 출력업체들의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ez-PDF(유니닥스), InDesign CS(어도비), M-Layout(소프트매직) 등 웹 퍼블리싱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품들의 기술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 일반 유저들을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끌어내 저변 확대를 이뤄나갈 수 있다.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러한 효과 외에도 Mac OS X 환경에 맞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국내 환경에 맞게 전환할 수 있어 해외로 막대하게 빠져 나가는 로열티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모 일간지의 폰트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체가 지닌 장점을 살려 자체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서체 시장이 개방되면 서체 회사들은 이윤 창출의 그릇이 작아지겠지만 OTF의 시장 출시 폭을 넓힌다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 환경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서체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비용도 낮아져 출력소들의 불만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정홍일 기자>

●●●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다국어 서체를 취급, 수출하는 한 서체 전문가는 “서체 시장이 과거 10년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OTF 서체가 시급히 출시돼 국내 시장에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